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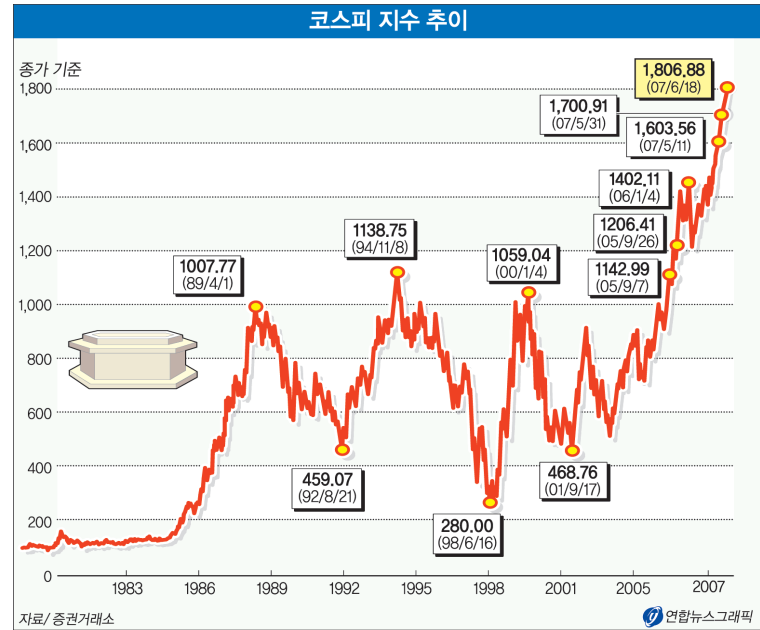
코스피 11일만에 100P 상승

코스닥도 818.11 연중 최고치 기록

코스피지수가 1,700을 돌파한 지 18일(매매 거래 기준 11일)만에 1,800을 돌파했다. 18일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15일)보다 34.62포인트(1.95%) 오른 1806.88을 기록했다. 특히 코스피지수는 1,500선과 1,600선 돌파 이후 각각 1개월과 20일 만에 100포인트씩 상승한 데 이어 이번에는 18일만에 다시 100포인트 오르

는 등 갈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연중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7.50포인트(2.19%) 급등한 818.11로 장을 마감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 양대 시장의 시가총액은 992조6천528억원으로 1천조 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외국인은 3천600억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으나 개인은 1천263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 1천595억원어치를 사들인 기관과 함께 쌍끌이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종목별로는 증권주가 자본시장통합법 국회 재경위 통과, 증시활황, 인수합병(M&A) 등 호재로 급등해 업종지수가 무려 11.51%가 올라 상승을 주도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증시 격언중에 '뛰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말이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지수가 18일 1,800선마저 돌파하자 뛰는 말에 올라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지수 상승보다는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면 단기매매 관점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되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성급한 투자보다는 하반기를 겨냥한 종목선정 작업 후 조정시 분할매수 전략을 구사하는 게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상승요인 및 지수 전망> 18일 코스피지수가 1,8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1천조원을 눈앞에 뒀다. 코스피지수의 신고가 행진은 뉴욕 증시의 상승으로 글로벌 금리인상 우려가 일부 해소되며 증권주가 자본시장통합법 통과로 인한 인수합병(M&A) 가능성과 증시활황 등을 재료로 연일 급등하기 때문이다.

■ 코스피 1,800시대 투자 어떻게 단기매매로 수익 극대화 해볼만 투자 시작하려면 하반기 노려야

또 주식형펀드 수탁자가 60조를 눈앞에 두는 등 하루평균 1천631억원의 자금이 주식형펀드로 유입되는 것도 증시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수 1,800선 돌파로 단기조정 압박이 더욱 강해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현 리서치센터장은 "지수 1,800 돌파가 오히려 부담스럽지만 조정이 오더라도 현 지수 대비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큰 조정을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IT주의 상승 불씨가 타오

성급하게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올 하반기에 좋아질 업종과 종목을 가려내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 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중소형주 선전 기대> 삼성증권 오현석 투자정보파트장은 "상반기 지수관련 대형주들의 가파른 상승세로 이들과 중소형주간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라면서 "현재의 상황뿐 아니라 하반기로 시야를 넓혀서 보면 매수세가 중소형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형주의 경우 상반기 중에는 대체에너지와 신소재 중심으로 테마를 형성했으나 하반기에는 그동안 완성차 업체들의 부진으로 동반 약세를 보였던 자동차 부품주들과 반도체 이외의 IT 부품주, 내수가 회복되면서 여행, 레저, 교육관련주 등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 파트장은 "일단 2분기 실적을 보고 중소형 테마주 등을 가려낼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이들이 드러나며 수익률 흐름을 연출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PDP가 LCD보다 TV 화질 선명

디지털 TV의 양대산맥인 LCD와 PDP 중 어느 쪽의 화질이 더 뛰어난가. TV업계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 등 5개국에서 LCD와 PDP TV 화질을 소비자 시각에서 비교 시연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시장조사기관 시노베이트는 최근 일본과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 국가에서 동시에 PDP와 LCD의 화질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비교 시연한 결과를 내놓았다. 결론부터 보면 PDP의 압도적인 'KO' 승이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시연에 참여한 5개국 소비자 70~80%가 PDP의 화질이 더 좋다고 답했다. 시연 결과 중국(참가자 181명)은 88%, 일본(192명)은 80%, 영국(171명)은 70%, 프랑스(179명) 69%, 독일(123명)은 80%가 PDP TV 화질이 더 좋다고 답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비교 시연을 하던 프랑스를 제외한 4개국 참가자들은 PDP와 LCD의 화질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거의 5대 5로 LCD와 PDP의 화질이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비교 시연 이후 8대 2로 PDP 화질이 더 좋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연합뉴스

제조업체 자산구조 변화 부동산·설비 줄고 주식·채권 늘어나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총자산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증권 형태의 투자 자산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총자산 가운데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9월말 43.59%였으나 같은해 연말 42.88%로 떨어졌고 2004년말에는 41.47%로 하락했다. 이어 2005년말에는 40.84%, 2006년말 40.00%를 나타내며 이어 올해 3월말에는 39.53%를 기록,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다. 유형자산 비중이 이처럼 하락하는 것은 제조업체들의 분기별 설비투자 증가율이 1%대의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주식과 장기대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투자자산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여성들의 '미니스마트폰' 18일 싱가포르에서 젊은 여성들이 '미니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울트라에디션 10.9와 3G폰인 울트라에디션 12.1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커뮤니케이션 2007'에서 '울트라에디션 II'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직폰과 패션폰을 전시한다. /연합뉴스

현대차 정치과업 비난 쇄도

현대자동차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정치과업을 되풀이하는데 대해 울산시민들은 노동계의 요구만 대변하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FTA 비준 반대과업은 지난 해에 이미 같은 이유로 수 차례 파업했고 그 결과 연간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성과급 지급을 놓고 연초부터 온 나라가 시끄�럽도록 화와 싸운지 불과 수 개월만에 또 다시 정치적 이슈로 파업하는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의 정치과업은 단일 사업장 국내 최대 규모의 엄청난 폭발력으로 민주노총과 과거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의 각종 대정부 투쟁 선봉에 서면서 시작했다. 이 회사 노조의 대표적인 정치과업은 지난 1996년 12월 말~1997년 1월 말까지 계속된 '개정 노동법 반대' 파업이다. 1996년 12월 말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유예하는 개정 노동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면서 상급단체로서 합법화를 노리고 있던 현총련의 힘이 무산되자 현총련의 연대투쟁 선봉에 서서 20여일간 파업해 회사에 자동차 8만4천여대의 생산손실을 입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임단협과 국내 노동계의 정치적 현안협상을 병행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런 가운데 2002년 2월에는 철도·발전노조 등 공공노조 파업에 연대투쟁하면서 1차례 파업했고, 2003~2005년에는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 등에 동참해 매년 1~2차례씩 파업하고 잔업도 거부했다. 울산시민들은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의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요구를 대변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생산손실을 담보로 하는 정치과업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건설업 60년 대표 사업 토목 - 정부고속도로 건축 - 여의도 63빌딩

건설 전문가들 선정

건설 전문가들은 한국 건설업 60년을 대표하는 토목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축사업으로는 여의도 63빌딩을 가장 으뜸으로 손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3~5월까지 건설업체, 건설교토부, 건설관련 전문가 등 1천20명을 상대로 '건설산업 60년을 대표하는 부문별 10대 건설'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전문가가 선정한 10대 토목사업(SOC 시열)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387표로 1위를 차지했고, 경부고속도로가 329표로 2위, 이어 인천국제공항(317표), 서해안고속도로·서해대교(307표), 청계천 복원사업(306표), 새만금 방조제(256표), 포항제철 건설공사(217표), 소

대학생 68.4% "취업 위기의식 심각" 코리아잡서치 설문

채용정보검색사이트 코리아잡서치(www.koreajobsearch.com)와 공모전정보사이트 핑긱은 최근 대학생 538명을 상대로 '취업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는가'를 묻은 결과 68.4%가 '매우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편이다'는 응답은 17.3%였으며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6.3%), '그저 그렇다'(5.8%),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스스로 준비된 인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그저 그렇다'(35.5%), '별로 그렇지 못하다'(27.7%), '매우 그렇다'(15.6%), '전혀 그렇지 못하다'(13.9%), '그런 편이다'(7.2%) 등으로 답했다. 조사대상자들은 취업준비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점으로 '목표 없이 준비한 점'(34.6%), '너무 늦게 준비한 점'(32.0%), '지나치게 인위하게 준비한 점'(22.5%)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자살하려고 보험에 가입?

사망 보험금 면책 기간 생보사·시민단체 논란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 안에 자살했을 때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의 확대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자살 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고 보험금을 노린 자살을 막기 위해 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입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부설 보험연구소는 최근 '기대수명 증가, 사망원인 변동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면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명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2년 후에 자살하려고 보험에 가입한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면책 기간을 늘릴 경우 가족의 생계 등을 위해 사망 보험에 드는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이트맥주 식이섬유 함유 '에스' 출시

하이트맥주는 식이섬유가 함유된 웰빙 맥주 '에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스는 100ml당 0.5g의 식이섬유가 함유돼 체내의 과다 영양분 흡수를 억제하고 장운동을 촉진시켜 체형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하이트맥주는 설명했다. 에스 1병(330ml)을 마시면 오이 2.3개나 달걀 8개 분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셈이라고 하이트는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식이섬유가 함유된 맥주가 4년전부터 출시됐으며 국내에서 동종 제품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품종류는 330ml병, 355ml캔, 1천600ml페트 3종이 있으며 알코올 도수는 4.0%다. 출고가는 330ml 병 맥주 기준으로 781.74원으로 기존 하이트 제품보다 12.8% 높다. 하이트맥주는 에스라인(S-Line), 스타일리쉬(Stylish) 등 신제품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집약하기 위해 영문 이니셜 에스를 제품명으로 채택하고 로고 및 병과 페트 용기는 녹색톤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